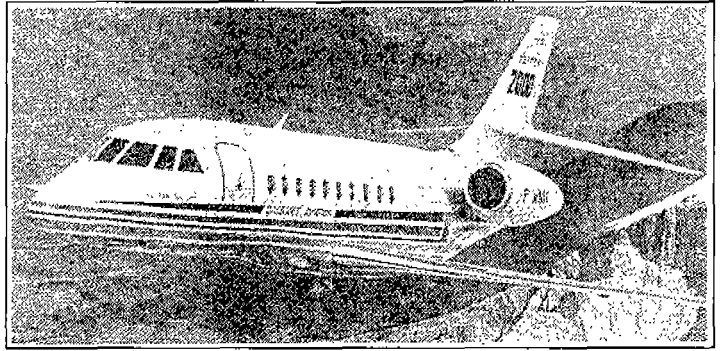


여의업계토픽

■ UA사 B727기 박물관에 기증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UA)사는 자사에서 퇴역하는 B727-22형 항공기 1대를 시카고에 있는 과학산업박물관에 기증키로 하고, 미시간호수에서는 부선에 태워 건너온 뒤 견인차에 실어 끌어다 박물관 야외 전시장까지 운반했다고 한다. 미시간 박물관 측에 의하면 동기는 오는 가을부터 일반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KOKU FAN 6)



〈F-2000 시험비행 모습〉

■ 형식증명 앞서 인명구조

F-2000 캐나다서 한냉지 시험 중

유럽계의 Desault Falcon 2000기가 최종 형식증명을 얻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한냉지 시험을 실시하던 중 지난 2월초 긴급 인명구조에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동기는 시험비행을 위해 캐나다 북동부의 디크아리드를 이륙하여 산간지대를 비행 중 유빙(流氷)에 고립되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구조통신을 반청하여 이를 캐나다 구급피난 본부에 중계하여 구조활동에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1993년 3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한 F2000기는 민간항공용 소형 쌍발여객기로 20인승 이내의 비즈니스용 항공기로 개발된 것인데 1995년 1월까지 각종

시험비행을 거쳐 형식승인을 얻을 예정으로 있다.

■ 주날개를 보강할 듯 신형 B747-X에서

미국 보잉사는 방금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초대형 민간항공수송기(ULCT)의 가능성 검토 연구와 병행하여 장차 개발될 차세대 초대형 점보 여객기인 B747-X의 기초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 세 항공기에는 신형 날개가 장착될 것 같다고 항공관계 전문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현재의 B747-400 점보기 외에 차세대 신형 점보기에도 여러가지 사양을 놓고 연구가 진행중인데 그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다음과 같고 한다.

즉 현재의 747 점보기의 동체를 약 6m 가량 길게 하여 80석 정도 승객을 늘리려는 것으로 그

렇게 되면 최고 약 600명의 승객을 동시에 태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날개도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인데 이 경우의 새 날개는 B777 개발의 신기법을 살려 후퇴각도는 약간 작아지고 대신 폭이 넓어져 자연 날개 전체의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 때문에 개발 제작비가 늘어나게 되면 앞에 말한 초대형 화물 수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에어버스사의 초대형 여객기 개발 계획도 보잉사의 이 계획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KOKU FAN 6)

■ A319 3대 구매 스위스 항공이 계약

스위스 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사와 A319기 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유럽 항공계 소식통이 전했다. 스위스 항공사는 당초

해의업계토픽

이탈리아의 아리타리아 항공과 함께 A319기종의 초기 수요자가 될 예정이었으나 아리타리아측이 발주를 삭감할 의향을 보여 스위스항공은 ILFC(국제 리스 금융)에 이은 두번째 실수요자가 된 셈이라고 한다.

ILFC사는 A319기종을 확정 6기, 옵션 2기 발주해 놓고 있는데 그 중 2기는 스위스항공측에 제공될 것이라고 알려져 스위스항공은 도합 5기의 A319기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로서 에어버스사의 확정 수주는 도합 9기로 되었으며 다른 항공사와도 구매 수주를 위해 맹활약 중이라고 한다. (KOKU. 6)

러시아 50%의 고관세 서방측 제트기 수입에

러시아는 YAK-40이나 TU-134등 약 100기를 국내 VIP수송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들 항공기의 대체용으로 서방측 항공기 메이커들이 비즈니스용 제트기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보호를 위하여 서방측 제트항공기 수입에 50%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율관세의 부과에 따라 서방측의 대 러시아 비즈니스용 제트기의 판매가 부진해질 것에 대비하여 서방측은 관세를 면하는

방식의 리스나 또는 임대차 방식의 판매에 나선 것 같다고 서방항공관계 사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KOKU-FAN)

곡예 비행기 개조 SU-38 농업용으로

러시아의 수호이 항공설계국은 SU-29복좌(2인승)곡예비행기를 개조한 SU-38을 개발 중인데 원형기는 금년말경에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기는 전장27.3m. 전폭 11.34m의 프로펠러기로 날개에 종약.비료 등의 살포장치를 만들어 농업용으로 쓸 것인데 인도시기는 95-96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Kouu Fan.6)

러시아기 사고는 기장 아들의 장난인 듯

지난 3월 23일 모스크바에서 홍콩으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에어 로프로트항공의 시베리아 상공에서 일어난 사고는 기장의 15세난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자동항법장치를 꺾어버린 탓에 생긴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다. 에어로프로트 310-308을 당시 시베리아 상공에서 사고가 생겨 승객 등 75명이 전원 사망한 비행기 추락 화재사고였다. 사고원인은 현재 정밀조사 중이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의 모스크바타임즈의 보도라고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 사고직전 크도린스키 기장의 15세난 아들과 스튜어드가 조종석에 앉아 자동조종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장난으로 꺼버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블랙박스의 분석결과라는 것인데, 사고위원회의 중간보고에서도 기장이 자기 아들과 딸에게 비행기 조종을 가르키다가 잘못된 것 같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국제 민간 항공기(ICAO)는 지난 3월 10일, 93년 민간항공기사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망자를 낸 대사고는 34건으로, 92년의 29건보다는 늘었으나 사망자수는 전년의 1,097명에서 937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KOKU)

사할린, 北海道선 개통 日항공국, 4월부터 인가

일본 운수성 항공국은 러시아 에어로프로트가 신청한 사할린/하꼬다데선의 항공로 취항을 승인, 금년 4월 4일부터 운항하고 있다. 운항은 주 두편, 월·목요일로 유지도 사할린스크를 15시에 출발 16시에 하꼬다데 도착, 다시 17시에 하꼬다데를 출발, 19시에 유지도 사할린스크에 도착하는 것으로 소요시간은 두시

여의업계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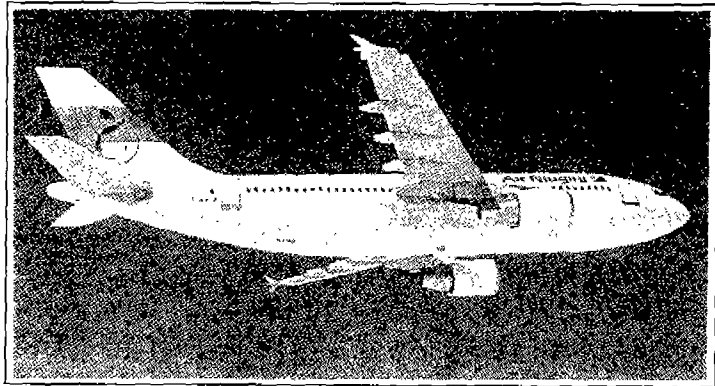
간이다. An-2기를 이용 32석의 작은 항공기를 취항시켜 승객수의 증가를 보아 다시 확장한다는 것이다.

파푸아 뉴기니아 취항 日, 나고야간 전세기로

파푸아 뉴기니아의 국영항공사인 PX항공을 금년 여름 일본의 나고야/포트 모레스비간 전세편을 운항하기로 했다고 일본 항공소식통이 발표했다. 전세편을 매주 토요일 출발, 주 한편으로 5주 일간 전세비행 형식인데 이로써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뉴기니아 직행 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하며 포트 모레스비에서 국내선을 이용하면 2차대전 중 일본의 해군 기지가 있던 라바울 등지에 갈 수 있어 일본인 승객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기종을 에어버스 A310/300형으로 209인승이 취항할 것이라고 한다.

미그 설계국 곤경에 냉전 종식의 러시아 항공사정 살아남기 경쟁에 부심

구 소련이 붕괴하여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 와서 과거 소련의 군용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영광의 전투기 설계사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민간항공기를



에어버스 310-300

만들어 보려고 하는가 하면 전혀 전문이 아닌 민생용품 개발에 나서는 등 그 고생이 만만치않아 나니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심한 곳이 의외에도 소련 전투기의 주류로 미국과 호각을 다투던 미코얀설계국(MIG설계팀)인 것 같다고 한다. 그것은 러시아 공군당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스호이설계국의 SU-27과 그 변형기들을 선택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MIG29시리즈의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찌기 미코얀과 수호이는 소련의 두 전투기 설계국으로 경쟁적인 개발을 통해 세계일류의 2 전투기를 만들어낸 과거의 업적이 있지만 현재의 러시아는 재정형편상 두 개의 설계국을 유지할 능력이 모자라 한 곳으로 몰아보려는 의도에서 선택한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미코얀설계국이라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 현재의 MIG31에 이은 고속요격용전투기로 프로젝트 701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의 SR-71에 필적하는 대형 초음속(마하2.2) 대형전투기를 개발한 데 이어 701이라는 이름의 F-18과 비등한 전투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종은 미국의 노드롭사의 시안과 흡사한데 이 두 가지 설계안을 러시아공군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SU-27의 후계기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있다고 한다. (MARU/94.2)

